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21년 6월 8일 기사입니다.

[철원]수십년 세월 간직 금단의 땅 한 눈에 탄성이 절로



돼지열병 영향 2년 중단
빠르면 7월 다시 열려
분단의 역사 체험 기회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로 출입이 중단됐던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DMZ생태평화공원(용양보·암정교)이 빠르면 올 7월 재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인통제구역 내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용양보는 60여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전하고 있다. 본보는 주둔 부대의 인솔하에 지난 4일 DMZ 생태평화공원 내 용양보와 암정교를 미리 탐방했다.

탐방을 위해 지난달 말 육군본부에 용양보 출입을 신청, 며칠 후 승인을 받았다. 4일 오후 주둔 부대 간부들의 인솔하에 민통선을 통과했다. 탐방객들은 사전 예약 등을 거쳐 용양보를 둘러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을 타고 2km를 달려 용양보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량 문을 열자 크고 시원한 물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DMZ 남방한계선 내에 조성된 농업용 저수지인 용양보를 타고 내려오는 물소리다. 옛 철교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보'인 만큼 근대문화유산으로의 가치도 지닌다.

발걸음을 옮겨 용양보와 늪지대를 감상할 수 있는 나지막한 전망대에 오르자 탄성이 터져나온다. 수십년의 세월을 간직한 왕버들 군락과 늪지대 한가운데 자리한 낡은 출렁다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차량을 타고 초소로 복귀하는 길에 철원지역 최초의 근대식 교량인 암정교에 들렀다. 인구가 10만여명에 육박했던 옛 김화군과 화천군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한 곳이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견디며 서 있는 이 노년에 들어선 교량에 대한 보존대책이 절실했다. 용양보와 암정교를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은 지난해 많은 비로 수해를 입고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철원군은 중앙부처, 군부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생창리 DMZ생태평화공원 재개방을 준비 중이다. 2016년 6월께 처음 민간에 공개된 생창리 DMZ생태평화공원은 2019년 9월까지 4만명이 넘는 탐방객이 다녀갔다. 과거에는 하루에만 최대 200명이 넘는 탐방객이 DMZ를 둘러볼 수 있는 행운을 잡았지만 이번 재개방에는 10~40명 이내로 탐방객의 출입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단의 땅을 밟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두 눈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철원=김대호기자